

## 「南韓地域 靑銅器時代 前期의 上限과 下限」에 대한 토론 요지

송 만 영  
경기도박물관

발표자는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연구를 통해 처음 고고학에 입문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가락동유형, 송국리유형의 형성, 취락 등을 주제로 왕성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연구자이다. 오늘 발표문은 5년 전의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최근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어서 기존 전기의 편년판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형원 선생님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기 편년 연구 논문과 다른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를 비교해 가면서 차이가 있는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 1. 청동기시대 전기 상한의 기준

발표자의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판은 III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토기문화가 병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편년판은 이미 발표자의 석사학위 논문(이형원 2002)에서 언급된 것으로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흔암리유형이 시간상 공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지금의 발표문과 비교할 때, 청동기시대 전기를 선동검기로 했다가 동검기로 수정하거나 미사리유형 I기를 전기로 보았다가 조기로 수정하는 등의 변화는 최근의 발굴 성과를 반영한 것이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토론자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발표자가 동시기로 파악하고 있는 유적의 토기 조합상이 서로 다를 수 있는냐는 점이다. 가령 서울, 경기지역의 전기 상한 자료로 예시된 동시기 유적들의 토기 조합상을 보면, 돌대문토기+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인천 동양동),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공별문토기(미사리 송실대 A8호, 여주 흔암리 9호), 공별토기+적색마연대부소호(미사리 서울대 A3호) 등으로 다양한데, 이 유구들이 동시기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특히 미사리와 같은 동일 유적 내에서 동 시기 주거지의 토기 조합상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토론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돌대문토기+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이중구

연(단사선문)토기+공별토기, 공별토기→혼암리식토기(전형 혼암리식토기→퇴화된 혼암리식토기)→공별토기 순의 토기 조합상이 시차를 달리한다고 본다. 토론자의 기존 편년안(2001)에 대입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토론자의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안(송국리문화 주 분포권 제외)

전기 전반(선동검기)	전기 후반(동검기)			중기
	혼암리 I기	혼암리 II기	혼암리 III기	
미사리, 가락동유형 돌대문토기+이중구 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공별토기, 공별토기	전형 혼암리식 토기	퇴화된 혼암리식토기	공별토기→ 송국리유형

물론 최근의 연구 성과를 고려해 볼 때, 즐문토기와 공반되거나, 또는 돌대문토기 단순기를 조기로 설정하거나, 금강유역의 가락동유형은 전기 후반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토론자의 편년안이 적절하다면,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공반되는 유적을 전기의 상한 연대 자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 2. 청동기시대 전기 하한의 기준

오늘 학술대회의 목적은 한국청동기시대의 시간적 범주와 함께 시기 구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학계 차원에서 정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발표했던 연구자들의 각 시기의 상한과 하한을 비교해 보는 것이 연구자 간의 시기 구분이 얼마만큼 합일을 이루었는지 점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발표자의 전기 상한과 하한이 다른 발표자들의 조기 하한 및 중기 상한 설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발표자의 전기 상한과 관련하여 천선행 선생님의 조기와 전기의 구분 기준, 유적에 대한 편년, 그리고 절대연대에 있어서 조기 하한과 전기 상한의 경계가 기원전 13세기인 점은 합일을 이루었다고 본다. 또한 발표자의 전기 하한과 관련하여 김규정 선생님의 중기 상한은 그 기준이 일정치 않아 발표자와의 비교가 어렵지만 절대연대에 있어서는 기원전 10세기 무렵에서 합일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리고 송국리유형의 형성을 기원전 900년으로 본 이홍중 선생님의 연구(2006)와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전기 하한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인데, 이는 다른 연구자와의 비교가 차전책이다. 토론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화된 혼암리식토기를

하한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발표자는 퇴화된 혼암리식 단계 이후의 순수 공별토기 단계를 전기 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화된 혼암리식 토기가 출토되는 보령 관산리 유적의 탄소연대가 기원전 11~10세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발표자의 2002년도 논문에서도 퇴화된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역삼동·혼암리유형III기를 전기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하고 공별토기만이 출토되는 역삼동·혼암리유형IV기를 중기(발표자의 후기)의 가장 이른 단계로 보았다. 또한 남강 유역이나 울산 지역에서 퇴화된 혼암리식토기 단계를 전기 하한으로 설정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 볼 때,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 3. 전기의 시기 세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발표자는 청동기시대 전기를 유혈구이단병식마제석검이 출현하는 전반과 비파형동검이 출현하는 후반으로 시기 세분하였다.

1) 유혈구이단병식마제석검의 계보에 관해서는 압록강~청천강유역의 가락동유형 집단의 남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북한 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 문화와 관련하여 주 분포권이 청천강 이남의 팽이형토기 문화권이며 여기에서 병부 형식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유혈구의 이단병식마제석검이 출토되었다(평양 원암리, 황해도 봉산군 어수구, 평남 대동군 미림리). 또한 유혈구유경식마제석검 조차도 팽이형토기 문화권인 평양과 황해도를 중심으로 밀집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지역 가락동유형의 형성이 좀 더 다양한 지역 문화가 복합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이는 남한 지역에서 출토된 이른 단계의 유혈구이단병식마제석검이 모두 가락동유형인지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발표자의 시기 세분에 있어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락동유형 편년과의 관계이다. 이는 결국 대전 비래동 출토 비파형동검의 연대와 관련되는데, 가령 이 동검의 연대를 가락동II기와 가락동III기 사이에서 결정을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기 세분의 기준만 세워놓을 뿐이지, 이와 연동된 구체적인 토기 조합상, 관련 유적, 나아가서는 절대연대 비정 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 비래동 및 오석리 공반 유물의 분석을 통해서 전기 후반의 구체적인 시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 4. 점토대토기 단계의 초기철기시대론

발표자는 점토대토기 단계를 초기철기시대론 이해하여 청동기시대를 조기, 전기, 후기로 구

분하였다. 이는 정한덕, 이홍중, 안재호, 이청규 선생님 등의 최근 연구 성과와 함께 원형점토대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에서 철기가 공반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철기와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었다고 해서 그 출현 시기가 같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오늘 발표한 김규정 선생님과 박진일 선생님의 발표문, 그리고 박순발 선생님의 토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면에서 학계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그 골자를 요약하면, 점토대토기와 철기의 출현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출현 시기에 있어 1세기 가량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최근 점토대토기 단계 유적의 기원전 7~5세기 절대연대측정치치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고 만약 이를 감안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기원전 7~5세기의 절대연대측정치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 한국식동검 단계”라는 기존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만하다(김장석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철기가 출토되지 않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시기 구분안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 5. 기타 청동기시대 전기 개념과 관련된 지엽적인 문제

발표자는 청동기시대 전기 개념을 설정하면서 취락의 구조를 통해서 조기와 전기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명시되지 않았다. 조기와 전기 전반의 취락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분묘의 출현을 전기의 특징으로 보았는데, 청동기시대 조기의 분묘가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은 점은 분명하나, 없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일 듯싶다. 이에 대한 재고를 요한다.

### |참고문헌

- 김장석, 2007, 「한국 청동기시대와 취락 연구」,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변천』제15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송만영, 2001, 「남한지방 농경문화형성기 취락의 구조와 변화」,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이형원, 2002,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 연구』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중, 2006, 「무문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60.